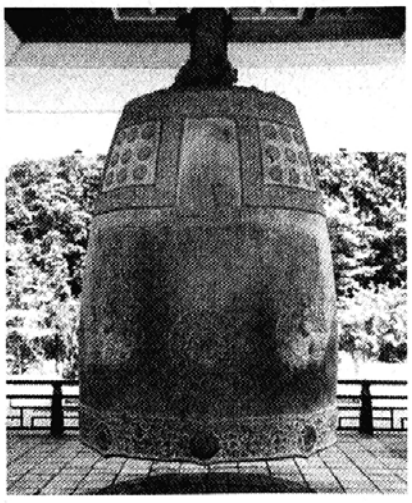


에밀레종에 담긴 신비한 이야기

천명일씨 '에밀레'

설화·시대적 배경 타종법 유래등 설명

한번 들으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일어나는 신비한 종이야기. 자비와 사랑의 불음을 대표하고 세계 제일의 소리를 내는 에밀레종의 슬픈 전설과 어원을 찾아 밝히는 신비한 이야기를 담은 〈에밀레〉(지혜의 나무 刊)가 나왔다.

이 책은 '불심이 담긴 봉덕사 종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전설처럼 에밀레가 어린 유아의 애절한 울음소리인가' 라는 의문에서 비롯됐다. 저자는 많은 사료들을 모으고 경전공부 등을 기초로 하여 에밀레종의 신비를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에밀레 어원이다. 저자는 오음학설을 들어 에밀레=금밀래(金密來) 즉 '여래밀인이 온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책에는 역사속의 종과 종소리, 타종법의 유래, 에밀레 설화와 시대적인 배경 등의 의미를 명료하게 풀어 헤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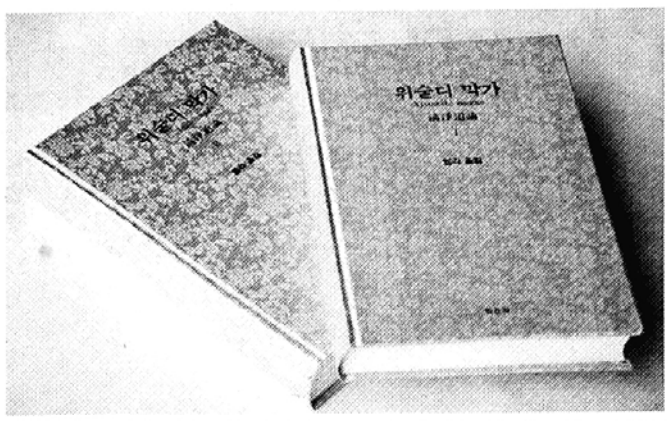
이와 곁들여 전설의 석종과 이항북의 토종, 치악산 상원사종 등의 흥미로운 전설을 소개하고, 동·서양 종의 형태와 모양 등의 특성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저자 천명일씨는 "에밀레 종소리를 한번 들으면 수행자에게는 깨달음이, 일반인들에게는 청정한 마음이 들게하는 신비한 파장의 힘이 있다"고 밝혔다. 값 5천원.

"계율바탕 환희심 얻어라"

붇다고사의 '위숟디 막가' 출간

남방불교 수행지침서 국내 첫 번역



최고 환희심을 체험하는 지혜의 힘은 어떤 것일까.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번뇌의 얽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설했다. 그것은 바로 지계(戒)·선정(定) 지혜(慧)이다. 물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행정진이 뒤따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총망라하고 그 수행의 능력을 자세히 보여주는 수행 지침서가 나와 수행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남방불교(테라와다) 최고의 수행 지침서로 손꼽히고 있는 붇다고사 마하테라의 〈위숟디 막가(淸淨道論), 깨끗한 길-닙바나에 가는 길)(화은각 刊)이 우리나라 최초로 범라스님에 의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붇다고사 마하테라가 깨끗한 '닙바나(니르바나)'를 원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그 닙바나를 얻게 되는 수행방법을 알게 하려고 불멸 973년 스리랑카 수도 아누루다의 마하위하라 정사에서 썼다고 알려진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경·율·론 삼장 정리

부처님 가르침은 8만4천 법문이라는 경·율·론으로 방대하게 설해졌다. 그리고 '닙바나에 가는 깨끗한 길'을 선정과 지혜로 설했다. 이 요지는 '계율에 잘 머물러서 번뇌를 말려 없애는 지극한 노력을 기울여 마음(선정)과 지혜의 싹을 키운다' 라는 게송으로 요약된다. 이를 순서대로 풀어 간 것이 바로 〈위숟디 막가〉이다. 이 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먼저 계율의 모습을 도두 보이고, 그 계율을 바탕으로 환희심을 내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선정의 모든 종류와 익히는 방법, 능력과 이익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지혜로 체험하는 열반을 상세하게 표현해 놓았다는 점이다.

두 권이 한질인 이 책은 3차 결집 때 부처님 말씀, 삼장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가운데 닦아야 할 세가지, 계·정·혜의 수행을 적고 있다.

역자 범라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가르침보다 특별한 이유가 이 책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고 번역 소감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읽었다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걸어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떠 마셔야 시원한 샘물의 맛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값 10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마하르쉬와 구도자들의 문답

'진아여여' 증보판 자기탐구회서 법보시

남인도 아루나찰라의 진인(眞人)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는 20세기 인도에서 출현한 가장 탁월한 영적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달마대사나 6조 혜능대사의 가르침을 연상시키는 그의 가르침은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의 수행처 아쉬람으로 찾아온 많은 구도자들과의 문답을 정리한 〈진아여여〉(자기탐구회 刊) 증보판이 나왔다. 진아, 탐구와 순복, 스승, 체험 등 모두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마하르쉬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본래로 진아(眞我)일 뿐이며, 그것은 누구나 항상 체험하고 있다. 항상 존재하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무지를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무지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나'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탐구이다" 라고 말한다.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주제다. 자기탐구회에서는 〈진아여여〉 증보판을 법보시하고 있다. (02-762-6021)

禪氣 넘치는 게송·가행 '감상'

법장스님 '조당집 주해1' 번역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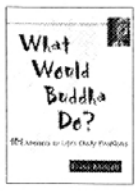
우리나라 선종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는 현존 최고의 종합 선종사서 〈조당집〉이 번역 출간됐다. 〈조당집 주해 1〉(동국역경원 刊)이 바로 그것.

〈조당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덕전등록〉에 비해 신라스님들의 행적을 많이 수록하고 있어 우리 선종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운·복청·원적화상 등 11인의 행장과 법어가 수록돼 있다.

1912년 고려대장경 보유판 속에서 찾아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조당집〉은 1권 과거 7불로부터 20권 미령화상까지 모두 248명 선사들의 전기집이지만 고측공안을 집성한 법요집으로서 편집, 선기 넘치는 게송(偈頌)·가행(歌行)등은 선문학의 진수.

백양사 강원 강주 법장스님이 펴낸 〈조당집 주해1〉은 〈조당집〉 20권 가운데 5권까지를 번역한 것으로 모두 다섯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값 2만원.

해외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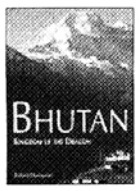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 = 베나레스카시 지방에서 만난 이교도 우바카를 교화했고,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외도(外道)를 섬기고 있던 파사익왕을 제도했던 부처님의 일화를 엮은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What Would Buddha Do-101 Answers to Life's Daily Problems)가 출간됐다. 미국의 소설가 프란츠 멧컬프가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신심과 신행을 북돋기 위해 '전생담' '경전' 등에 흩어져 있는 부처님 일화를 모았다.

제목의 머릿 글자를 따 'WWBD'로 더 알려진 이 책은 'WWJD(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와 함께 미국 서점연맹의 권장도서로 선정됐다. Ulysses Pr 간행, ISBN 1569751811

▲셰다곤-미얀마의 황금 탑 = 탑의 나라 미얀마. 역대 왕들이 그들의 신성(神性)을 탑에서 찾았던 만큼이 천탑의 전설이 있는 나라. 영국의 고고학자 엘리자베드 무어가 이 곳의 탑을 주제로 엮은 화보집 〈셰다곤-미얀마의 황금 탑(Shwedagon-Golden Pagoda of Myanmar)〉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셰다곤탑, 만달레이탑 등 미얀마의 대표적인 탑을 비롯해 4백 여개의 탑이 화보로 꾸며졌다. 또 미얀마의 역사학자 한스 죠그 메이어 박사의 '탑의 혁명과 역사'라는 논문도 게재됐다. 논문은 11세기경 불교를 수용하면 탑을 세워던 74간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Thames & Hudson 간행, ISBN 0500974837



▲부탄-용의 왕국 = 부탄불교의 상징인 스와얌부나트 스투파를 비롯 말라왕조(1200~1750년)때 조성된 수천의 불교 사원을 화보로 선보인 〈부탄-용의 왕국(Bhutan-Kingdom of Dragon)〉이 출간됐다. 호주의 저명한 사진작가 로버트 돔프니어가 제작한 이 화보집에는 3백 여점의 고화질 사진을 통해 밀교적 성향이 짙은 부탄불교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탄은 지리적으로 티벳과 접경을 이루고 있어, 밀교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Shambhala Purns 간행, ISBN 1570625107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풍경	원 성	이 레
2	금강경강해	김 용 옥	통나무
3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4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일 타	불교시대사
5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7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8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 우 사
9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10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이 창 호	정 우 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당신에게 무엇을… 혜정스님 지음

수행하며 배우고 느낀 단상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어디서 하든 살아가는 충전이다. 충전은 발심·재발심을 하여 갈 때 깨달음의 밑거름이 되고 참 진리를 찾아 하나씩 허물을 벗어가는 것이다."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이 수필집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갈까〉(동원사 刊)를 내놓았다. 수행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단상들을 수행자 특유의 문체로 풀어냈다. 물론 신행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인생행로, 인간 본성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처음부터 읽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주제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또다른 맛이다. 값 6천5백원.

어머니 미움을 넘어섰어요 권회로 지음

'김의 전쟁'의 거짓과 진실 담아

권회로씨가 두 명의 야쿠자를 살해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8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그는 일본 경찰과 언론 사회에 대해 무엇을 요구했으며 인질들은 왜 인질범의 편이 되었을까. 왜 재판을 거부했으며 무기형을 선고받고 31년 7개월간 감옥에서 '또다른 전쟁'을 벌여야 했을까.

일본의 최장기수로 30여 년만에 석방된 권회로씨가 쓴 〈어머니 미움을 넘어섰어요〉(중앙M&B 刊)는 30여 년만에 최초로 밝혀지는 '김의 전쟁'의 거짓과 진실이 고스란히 수록돼 있다. 값 7천원.

이제 병원도 선택의 시대입니다 - 내 집처럼 편안한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으로 오십시오

한방과 양방 협진 / 최우수 의료진 / 첨단의료 시설 등 최상의 진료 서비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 개원

한국불교 1천6백년, 민족의 등대지기 1백년, '동국'의 향기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자비실천에 앞장섭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불교의 손길은 와 있어야 하듯 중생이 아프면 불교가 앞장서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 맨 앞에 동국대학교 의료원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경주한방병원, 경주병원, 포항병원, 분당한방병원, LA 로알한방병원등을 개설, 운영한데 이어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 또 하나의 역사 - 강남한방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과 장수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인간화·첨단화의 바탕 위에 한방과 양방이 어우러진 21세기 열린 병원-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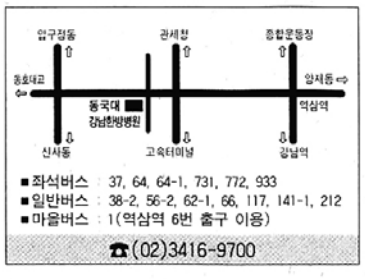
■ 진료개시 : 1999년 11월 1일
■ 개 원 식 : 1999년 11월 11일 오전 11:30

진 료 과 목 안 내

진료과	진료교수	전문진료분야
내 과	이원철 정지천 임성우	성인병 (중풍, 당뇨병,전립선비대) 신장비뇨기 질환 (신장병, 부종, 전립선염, 성기능장애) 순환기 질환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소화기 질환 (위장병, 간염, 변비, 설사) 호흡기 질환 (감기, 기관지염, 천식)
신경정신과	구병수	신경증, 정신치료, 두통, 현운, 치매, 우울증, 홧병
침구과	김갑성 이승덕	신경근육계질환, 급성 및 만성 통증질환, 각종 관절질환, 각종 마비성 질환, 부항요법, 전통침구요법, 팔체질침 클리닉
제 활 의학과	이명종	척추질환(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 골반통증 등), 척추교정, 신경통, 물리치료, 비만
부인소아과		갱년기장애, 냉증, 월경병, 불임증, 산후병, 여고생 건강상담, 소아 알레르기질환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아뇨증, 허약아, 비만아, 경기, 성장지연, 성장통
안·이비인후과		눈, 코, 귀, 인후 (편도선), 피부질환, 치질

※ 양방진료과목과 종합건강검진센터는 2000년 3월 이전에 완비할 예정임

· 성인병 클리닉
· 내상 클리닉
·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
· 갱년기 클리닉
· 척추 클리닉
· 팔체질침 클리닉
· 두통 클리닉
· 비만 클리닉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경주병원 (0561)748-9300 / 포항병원 (0562)273-8111 / 경주한방병원 (0561)770-2377
분당한방병원 (0342)710-3700 / 강남한방병원 (02)3416-9700 / LA동국로알한방병원 (213)487-0110

동국의료원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양질의 의료시혜와 친절한 간호로 봉사하며, 서로 화합하고 연구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조국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